

# I.A.Richards 시론의 수용과 영향

조 미 영\*

우리 문학사에서 I.A.리차즈(1893~1979)는 T.S.엘리엇과 더불어 비평가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의 사상과 시론은 시의 과학화 및 비평의 현대화를 둘러싼 비평가들의 자기모색과 성찰의 중심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의 문학적 입장은, 그것이 상당한 수정을 거친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수용자의 개성적 시각에 의해 상이하게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리차즈의 시론과 사상이 1930년대 한국 문단에 수용되는 과정과 의미를 조망하고 이어 전후 신비평의 수용과 관련하여 그의 이론이 한국 비평사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1. I.A.Richards 예술론의 사상적 배경

현대 영미비평의 기원은 영국의 19세기 시인이며 비평가인 매슈 아놀드(M. Arnold, 1822~88)에게로 소급되며 그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철학과 종교가 시에 의해서 대체될 것이라고 예견하였고 문화(culture)를 무질서(anarchy)에 대항하는 인문주의적 대안으로 주장하였다.<sup>1)</sup> 이러한 아놀드의 선언을 매개로 새로운 문학운동을 주도한 이들이 바로 엘리엇, 리차즈, F.R. 리비스와 같은 인물이다. 이들은 20세기 문화적 야만주의에 대항하여 전개된 문학작품에 대해 객관적이고도 과학적인 비평을 시도했다.

---

\* 박사과정

1) 라만 셀던 외, 정정호 외 역, 『현대문학이론개관』, 한신문화사, 1988, 17~33면.

엘리엇은 중산계급의 이데올로기인 자유주의, 낭만주의, 프로테스탄티즘, 경제적 개인주의를 공격하고 그 해결책으로 사람들이 모두 비인격적 질서를 위해 자기들의 하찮은 인격(개성)과 견해를 희생시킬 것을 주장하는데 문학의 영역에서 이 비인격적 질서를 그는 전통(유럽정신)이라고 불렀다.<sup>2)</sup> 엘리엇의 「전통과 개인의 재능」이 암시하고 있는 물개성, 전통과 고전의 중요성, 예술작품의 자족성, 통합된 감수성 등의 개념은 리차즈와 미국의 신비평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리차즈는 1924년에 『문학비평의 원리』(Principles of Literary Criticism)를 출간하고 문학연구를 위한 이론적 기초를 세우는 혁신적인 시도를 했으며, 『과학과 시』(Science and Poetry, 1926)에서 리차즈는 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시는 혼돈을 극복할 완벽한 능력이 있는 수단이다”<sup>3)</sup>라고 하여 현대 사회에서 시가 종교의 역할을 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비평이 과학의 정확성과 겨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의 정서적 언어를 과학의 지시적 언어와 구별하여 문학 언어의 특수성을 표현하고자 했다. 시는 신념이나 사상과 관계가 없이 정서나 태도를 전달할 수 있는 형식적 구조물이라는 것이 리차즈의 생각이다.<sup>4)</sup> 리차즈의 이론을 지탱하는 두 기둥은 가치론과 전달론으로, 문학의 본질은 ‘전달’에 있으며 여러 ‘충동의 조직’이 심리적 균형을 이루는 정도에 의해 예술작품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그에 따르면 ‘가치있는 체험’을 ‘잘 전달하는 것’이 예술가의 일이며 체험의 가치를 결정(critical part)하고 전달로서의 대상의 효과를 판단하는 것(technical part)은 비평가의 임무이다. 리차즈는 예술이라는 지적 경험을 통해 인간의 정신이 ‘내적 자질을 소비하는 상태’에서 그것을 ‘실현’하는 완전한 상태로 들어감을 주장하여 예술의 가치를 ‘정신의 조직화’라는 측면에서 세우고자

2) T.S. Eliot, “Tradition and the Individual Talent”, *Selected Essays*. 1932 (Faber and Faber Limited, 1980) 참조.

3) I.A.Richards, *Science and Poetry*, 1926, Routledge & Kegan Paul, 1970, pp.82~83 참조.

4) 리차즈는 시를 읽을 때 지적 신념이 동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며 시를 읽을 때 신념을 문제시한다면, 그는 도덕론자나 천문학자, 신학자라고 생각한다. 엘리엇은 시에 신념이 표현될 수 있다고 보아 시의 진술이 가진술이 아님을 시사했으며 시인의 사회적 역할 및 전통에 대한 탐구를 강조하였다.

하였다.<sup>5)</sup> 이러한 리차즈 비평론의 일관된 패러다임은 ‘질서’이며 질서는 혼란을 극복한 상태, 평형과 안정을 구하는 심리이다. 그가 포괄의 시를 옹호하고 아이러니를 좋은 시의 조건이라 한 것도 이러한 시가 경험의 불협화적 요소들을 감추어 시에 내적 평형을 부여함과 동시에 심리적인 안정을 제공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리차즈는 초기의 실증주의적 견해를 버리고 1935년 『상상력에 관한 코올리지의 이론』(Coleridge on Imagination), 1936년 『수사학의 철학』(The Philosophy of Rhetoric)에서 ‘낭만적 개종’을 단행했다. 그러나 리차즈 자신도 주장했듯이 그의 초기 저서와 후기 저서의 차이는 사상 그 자체보다는 언어 표현 속에 있다.<sup>6)</sup> 후기 저서에 이르러서는 기계론자의 용어인 관심이나 충동, 자극과 반응 같은 말은 사라지고 인간과 동물의 동질성보다는 차이를 강조하기에 이른다. 또한 언어란 기계적인 작용 이상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는 완전한 표현의 양식>이라고 정의한다. 리차즈는 심리주의에서 점차 인식론적 해석으로 전환했으며 신비평가들의 <시는 일종의 지식>이라는 신념에 접근했다. 초기 이론이 심리학에 기반한 가치론에 중심을 두었다면 후기 이론은 전달론을 바탕으로 언어와 의미의 문제에 치중한 것이었다.

중산계층의 인간중심주의에 반기를 들고 기성 종교와 권위에 의존한 것이 흠, 엘리엇, 파운드라면 리차즈는 오히려 리비스의 휴머니즘론에 비견되기도 하는데 리차즈가 문학이 독자의 태도에 영향을 준다고 한 것은 넓은 의미에서 도덕적, 윤리적 문학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는 언어의 전달 가능성을 믿었고<sup>7)</sup> 이성과 교육의 힘을 신뢰했다. 리차즈는 낭만주의자들이 도외시한 예술가의 정상성(normality), 전달의 중요성, 예술 경험의 일상성을 중시하여 문학과 생활의 긴밀성을 강조하였으나 문학을 독자에 우선하

5) I.A. Richards, *Principles of Literary Criticism*, 1924, Routledge & Kegan Paul Ltd, 1964, pp.223~238.

6) 리차즈의 후기 사상에 관한 부분은 리처드 포스터(정대진 역), 『뉴크리티시즘의 재평가』, 한신문화사, 1990, 38~47면을 참조함.

7) 프레드릭 제임슨(윤지관 역), 『언어의 감옥—구조주의와 형식주의 비판』, 까치, 1985. 제임슨은 리차즈의 언어관에서 신비평이 출발함을 지적한다.

는 것으로 책정하여 독자를 문학적 기준에 의해 판단하고 교육시켜야 한다는 보수적 사회의식을 벗어나지는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sup>8)</sup> 그러나 리차즈는 시의 유기적 구조를 분석하여 텍스트에 내재된 의미의 다양성을 독자에게 전달한다는 비평가적 역할을 설정하여 현대 문학에 있어서 비평의 시대를 열었다고 할 것이다.

## 2. 초기 리차즈 수용

### 2-1 이양하의 경우

이양하는 1932년 리차즈의 『시와 과학』(硏究社)을 일문으로 번역하여 우리 문단에 리차즈를 최초로 소개한 바 있다. 그는 이후에도 1933년 조선일보에 「리차즈의 문예가치론」을 분재하면서, 시란 경험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라는 리차즈 이론을 개괄하고, 시분석, 언어연구, 전달과 의미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1935년 「조선현대시의 연구」에서는 리차즈의 『실제비평』(Practical Criticism, 1929)을 원용하여 실제 작품분석에 임하고 있기도 하다.

이양하는 현대는 ‘물활적 세계관’에서 ‘과학적인 세계관’에 이르는 전환으로 과거에 통일과 조화를 조성하고 있던 질서가 붕괴되어 나타나는 혼돈상태에 놓여있다고 지적하며 비평은 이러한 혼돈상태에 형체와 통일과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양하는 이러한 혼돈 속에서 현대를 구할 수 있는 예술비평으로 리차즈의 가치론을 소개한다.<sup>9)</sup>

사람은 요컨대 신경조직이요, 마음은 여러 가지 충동의 조직이다. 그리고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충동을 만족시킴으로써 평형상태를 유지코저 하는 것이 되어 이 평형상태를 일컫는 반사라도 안녕질서를 보전할 수 없다. 그런데 경험은

8) 리차즈는 인간의 기본적인 반응들이 흐트러지고 혼란된 삶은 결코 훌륭할 수 없다고 말하며 행동은 충동들의 완전한 균형을 방해하기 쉽다고 말한다. I.A. Richards, *Principles of Literary Criticism*, p.32, p.36.

9) 이양하, 「리차즈의 문예가치론」, 『조선일보』, 1933.1.23. 2회.

마음의 활동 즉 충동의 활동이다. 따라서 선한 경험과 악한 경험의 차이는 동일한 충동으로 된 경험과 혼란한 경험과의 차이요, 따라서 선악의 경험은 최대다수의 충동의 최대한도의 자유와 최소수의 충동의 최소한도의 구속으로 된 경험이라 한 것이다.<sup>10)</sup>

이양하는 “제예술을 구성하는 제요소의 상호관계, 또는 그 요소의 하나하나와 가치론과의 관계를 명백히 한 것”<sup>11)</sup>이 리차즈의 비평이라고 밝혀 가치를 전달함에 있어 예술적 형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리차즈가 과학의 획일화를 극복하고자 했고 시를 통해 현대적 상황을 극복하려 했다는 정확한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 이양하의 리차즈 수용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양하는 리차즈의 『시와 과학』을 번역하고 쓴 역자 서문에서도 리차즈가 시와 과학은 결코 배치되지 않고 시야말로 생활에 질서와 통일을 부여하는 수단임을 강조했다고 밝힌다.<sup>12)</sup> 그는 리차즈가 과학에 대해 도리어 시의 입장을 변호하였으며 『시와 과학』은 현대의 시 옹호론이라고 소개한다. 리차즈는 실증주의의 영향으로 모든 언어를 과학적 진술과 정서적 발언으로 구분하고 시적 진술(가진술)은 진리나 신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과 태도를 조직화한다고 보았다. 현대에 와서 시는 종래의 종교가 수행하던 정서의 조직화라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고 이로써 시는 종교와 같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리차즈는 『시와 과학』에서 주장한 것이다. 이양하의 이러한 리차즈 이해는 초기 최재서와 김기림의 글에 보이는 리차즈의 과학적 태도에 대한 경사와 비교될 수 있다. 특히 김기림은 리차즈가 시를 기술적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태도에 상당한 호의를 가졌지만 리차즈 비평의 형이상학적 측면은 경계하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그는 리차즈의 이론을 자신의 태도 내에서 상당 부분 굴절시켜 수용하였다.

한편 이양하가 리차즈의 가치론을 소개하면서도 ‘심리학적 가치론보다는 그의 시의 분석, 언어 연구, 또 전달과 의미에 관한 일반적 연구가 도저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 것은 리차즈의 관심이 가치론에서 전달론과 의미론

10) 이양하, 「리차즈의 문예가치론」, 4회.

11) 이양하, 위의 글, 9회.

12) I.A. Richards(이양하 역), 『시와 과학』, 을유문화사, 1946. 서문참조.

어로 전환되었음을 상기할 때 의미있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이양하는 「리차즈의 문예가치론」(조선일보, 1933.1.22~31)과 「조선현대시의 연구」(조선일보, 1935.10.4~11)에서 작품을 토대로 하여 시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여서 주목된다. 특히 후자에서는 리차즈의 「실제비평론」을 소개하고 이것이 ‘시를 정당히 관찰하고 시에 대한 우리의 好惡의 연유를 분별하는 방법을 제공’하며 시를 감상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교육방침을 암시해 준다고 설명한다.<sup>13)</sup>

이러한 이양하의 시에 대한 실증적 접근 노력은 「조선어의 수련과 조선 문학장래」(조선일보, 1935.7.6), 「바라든 지용시집」(조선일보, 1935.12.7~11) 등에서 구체화된다. 앞의 글은 당시 시문학의 발전과 언어와의 관계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시가 언어예술이라는 이양하의 자각을 엿보인다. 후자는 서평으로서 정지용 시를 감각, 어법, 사상면에서 고찰한 글이다. 특히 정지용의 작품 「귀로」(鋪道로 나리는 밤안개에 /어깨가 저음이 무거웁다/이마에 觸하는 쌍그단 계절의 입술/거리에 등불이 한쪽! 눈물겹고나.)를 ‘자음(ㅍ, ㅁ, ㅂ)의 배치 자체에 자욱한 안개의 암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시의 음운이 시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음을 지적한다.<sup>14)</sup> 이러한 비평은 당시로선 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었으며 이는 리차즈의 이론을 수용하고 이를 우리 시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 적용하고자 한 이양하의 노력에서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 2-2 최재서의 경우

이양하에 이은 리차즈 문학론의 소개자는 최재서로 「현대주지주의문학이론」(조선일보, 34.8.7~12)과 「비평과 과학」(조선일보, 34.8.31~9.5)에서 흙, 엘리엇, 리차즈, 리드의 문학론을 주지주의라는 명칭으로 통괄하여 고찰하고 있다.<sup>15)</sup> 이 두 편의 글들은 단순히 이론의 소개에 그치지 않고 최재서 자

13) 이양하, 「조선 현대시의 연구」, 조선일보, 1935.10.6.

14) 이양하, 「바라든 지용 시집」, 조선일보, 1935.12.10. 3회.

15) 주지주의라는 용어는 영미 모더니즘 문학과 그와 관련된 문학이론을 지칭하는 것으로 최재서는 실제비평에서 이상의 「날개」와 김기림의 『기상도』를 주지적 경향이

신의 문제의식이 습합되어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최재서는 리차즈의 저서 중에서 『시와 과학』을 중점적으로 소개하면서 그것이 심리적 태도론과 심리적 가치론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정리한다. 최재서는 리차즈가 정신분석학을 원용함으로써 전통적으로 신비화되었던 시적 체험을 체험일반의 것으로 탈신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으며 시적 체험이 체험 일반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시적 체험의 가치 또한 체험 일반의 가치와 동일한 것임을 지적한다. 최재서는 리차즈 이론의 핵심이기도 한 ‘질서’를 현대 속에서 가장 가치롭게 살 수 있는 상태로 생각한다. 그는 “우리의 모든 충동이 질서와 조직을 가지지 않고 우리는 단 일분도 평화롭게 지낼 수가 없다”고 말한다.<sup>16)</sup> 『문학비평의 원리』(1924)에서 리차즈는 예술의 지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이 혼돈에서 정돈으로, 정신의 내재적 자질을 소비하는 상태에서 그것들을 실현시키는 완전한 상태로 들어감을 주장했다. 이처럼 ‘예술이 인간의 정신을 조직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리차즈는 사회 문제를 사회 변혁이 아닌 우리의 의식 내부, 정서에서 해결하고자 하였다. 최재서에게 낭만주의와의 관련성 속에서 현대를 규정해 준 것이 흄의 이론이었다면, 리차즈는 ‘생이 낭비 되는’ 현대 속에서 가장 풍요로운 삶을 효율적으로 영위하도록 하는 원리를 알려준 것이다. 리차즈의 이론은 이처럼 질서라는 매개항을 가지고 최재서에게 자연스럽게 흡수되고 있다.

그러나 30년대 후반 최재서는 비평의 중심을 모랄에 두면서 리차즈의 시와 신념의 분리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sup>17)</sup> 이후 최재서는 배빌과 모어가 대표하는 신희머니즘(NeoHumanism)이 윤리적 인간적 가치를 비평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소개<sup>18)</sup> 하는 한편 오든과 스펜더로 대표되는 전후파의 논리를 엘리엇이나 리차즈 문학과 대비를 통해 고찰하고 있는 것이다. 최재서가 작가의 신념을 강조하면서 비평의 주된 역할을 작품의 가치평가에 있다고 보고 윤리지향적 문학관을 수립한 것 역시 그가 ‘질서’

라고 명명하였다.

16) 최재서, 「비평과 과학」, 조선일보 1934.9.7

17) 최재서, 「문학과 모랄」, 『최재서 평론집』, 청운출판사, 1961, 30면.

18) 최재서, 위의 책, 32면.

라는 의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후 최재서는 『문학원론』(1957, 춘조사) 서문에서 “해방 후에 자유의 단 맛을 알았지만 또 질서의 귀중함을 깨달았다. 나날이 어지러워만 가는 혼란한 환경 속에서 나는 질서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그럴 적마다 나는 문학 속에 침잠했다.”라고 쓰고 있다. 그는 자유로움 속의 혼란을 질서와 대비시키면서 그 질서에의 그리움을 문학에서 채우고자 한다. 『문학원론』은 해방후 발표한 글들을 정리한 것으로 이 책의 중심에 놓여있는 것은 <체험론>이다.<sup>19)</sup> 그는 문학은 ‘가치있는 인간체험의 표현’이자 ‘전달’이라고 정의한다. 최재서가 이 책에서 원용하고 있는 것은 리드, 리차즈, 존 듀이의 심리학이다. 최재서는 제임스, 듀이의 연상심리학이 무엇보다 생활의 체험과 예술의 체험이 각각 다른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그러한 심리학을 직접 문학의 문제에 적용하여 과학과 문학의 접근을 꾀한 것이 리차즈의 「과학과 시」라고 설명한다. 『문학원론』은 최재서가 초기 리차즈 수용에서도 주목했던 ‘질서’의식이 낳은 것으로 그 중심에는 리차즈의 심리학이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리차즈의 이론에 기대어 “작품은 흥미를 조정하여 정신을 안정상태로 가라앉히는 수단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문학은 자극과 반응의 두 면에 있어 흥미를 조직화하는 기술이다”<sup>20)</sup>라고 적고 있다. 이 시기 최재서는 리차즈의 평형이론을 자신의 비평관으로 육화시키고 있으며 리차즈와 마찬가지로 시를 정신 현상의 최고 자리에 놓고 있다.

프레드릭 제임슨은 리차즈 시론 및 신비평의 요체인 유기체론이 내포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성을 지적하였으며<sup>21)</sup> 이글턴은 시를 정치적 무기력을 빚는 비방이라고 비판하고 신비평이 회의적 자유주의적 지식인들에게 어필하여 현재의 정치적 상태에 복종케 한다고 비판<sup>22)</sup>하는데 최재서의 리차즈 이론 재수용은 다분히 이러한 도피적이고 보수적인 태도에서 나온 것이며 이

19)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상연구1』, 일지사, 1984. 291면. 김윤식은 이러한 현상을 정성제대 영문학의 낭만주의 전공자들이 이르게 된 자연스러운 귀결이며 최재서가 이처럼 질서를 그리워하고 리차즈 이론에 다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외부 현실의 혼돈과 그 자신의 내부의 정신적 혼돈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한다.

20) 최재서, 『문학원론』, 춘조사, 1957. 182면.

21) 프레드릭 제임슨, 『언어의 감옥』, 까치, 1985, 서문참조.

22) 테리 이글턴, 『문학이론입문』, 창작과비평사, 1986, 67~68면.



러한 현상은 백철의 신비평 수용 태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최재서는 선구적으로 리차즈를 우리 문단에 소개하였으나 윤리, 모랄을 자신의 비평이론의 중심으로 삼게 됨에 따라 실천비평에 있어서는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모더니즘 문학이 내포하는 세계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있었기에 당시 모더니즘 작품인 『기상도』와 李箱의 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현대적인 시각을 제공할 수 있었다.

## 2-3 김기림의 경우

30년대의 최재서와 이양하에 의해 소개된 리차즈의 비평론은 김기림에 의해 체계화된다. 김기림은 이 땅에서 리차즈에 대한 가장 지속적이며 전폭적인 관심 속에 자신의 이론을 전개한 비평가일 것이다. 이런 사실로 인해 김기림론의 상당 부분이 리차즈와의 관련성을 해명하는 데 바쳐져 온 것이 사실이다.

송옥이 그의 『시학평전』에서, “김기림이 이룩하려던 「시의 과학」은 끝내 몽상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의 「시론」은 리차즈 기타 외국문학에서 얻은 단편적 지식의 두루뭉수리를 꿰뚫고 나오는 과학과 새로운 것에 대한 소박한 신앙고백이 되풀이 된 것에 지나지 않았다”<sup>23)</sup>라고 혹독한 비판을 한 것을 시작으로 김기림 시론의 영향관계 및 그 진정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었다.

이재선은 위의 송옥의 부정적 평가에 의문을 제기하며 리차즈의 비유론을 김기림이 체계적으로 받아들인 점을 밝히고 글의 분석과 해석을 위한 방법론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문장이나 작시법에 있어 표현적 가치로서의 은유의 기법적 요소를 제공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sup>24)</sup>

「현대비평의 딜레마-비평, 감상, 제작의 한계에 대하여」(조선일보, 1935.

23) 송옥, 『시학평전』, 일조각, 1970. 183면.

24) 이재선, 「문장론성립에 있어서의 서구의 영향」, 한국어문학회, 어문학17, 1967.12. 김기림과 리차즈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는 글에는 이 밖에도 한계진, 『한국현대시론 연구』(일지사, 1983), 서준섭, 「1930년대 한국모더니즘 연구」(서울대 대학원, 1977)와 서준섭, 「한국 현대문학비평사에 있어서의 시비평이론 체계화 작업의 한 양상」(비교문학, 1980.12), 김유중, 『한국모더니즘문학의 세계관과 역사의식』(태학사, 1996) 등이 있다.

11.29~12.8), 「과학과 비평과 시」(조선일보, 1937.2.21~26)에서 리차즈 심리학에 기반한 시의 과학화를 주장한 김기림은 「시의 이해-I.A.리차즈를 중심으로」(1950)에서 다음과 같이 리차즈를 비판하고 있다.

A.도피의 시---김기림은 엘리엇이 시와 신념과의 단절을 성공시켰다고 평하고 「과학과 시」에서 시는 가짜 진술이라고 한 점 등을 들어 리차즈가 진술의 객관적 진리성을 검토하는 사회적 활동으로부터 시를 격리시켰다고 비판한다. 그는 또한 리차즈 문학의 요체인 심리적 균형이 소극적 태도예의 은퇴라는 것이며(“그는 시라는 말로써 오직 한 종류의 시 즉 「도피의 시」만을 의미하려 한 것 같다. 그러한 시는 프로이드가 주장한 환상으로서의 예술임에 틀림없다.”, p.278) 리차즈의 문학은 정신적 내면적 위기의 시대인 20년대를 건디려는 발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B.심리주의---김기림은 또한 엘리엇의 ‘역사적 감각’을 들어 문학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과 그 의미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리차즈가 시를 심리적인 면에서만 다룬 점, 그 밖의 것은 인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 비판한다.

C.형이상학의 유희---김기림은 “신화와 종교는 역사상 한 민족이나 종족의 꿈의 표현일지언정 아무런 지식의 원천도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근대에 들어 신화와 종교의 권위가 추락하자 새로운 형이상학들이 과학의 옷을 입고 나타난 것이라면서 리차즈가 시를 신화화하고 지나치게 높은 자리에 앉혔다고 비판한다. 그는 또한 인간의 심리적 현상은 일괄하여 설명하거나 검증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리차즈의 심리학은 과학적 체계 수립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를 유보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최재서가 해방 이후 리차즈의 평형론에서 자신의 문학행위의 활로를 찾고 리차즈처럼 시를 문학의 상위에 두고 있는 데 반해 김기림은 시의 사회적 효용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리차즈를 비판하는 등 실용주의적 태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드러낸다. 김기림은 리차즈가 생각한 것과는 달리 시에는 종교를 대신할 만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통일원리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그의 「시와 언어」(1940.5)에 잘 나타난다. 즉 「도피의 시」와 「환상의 예술」로 신화의 지위에까지 오른 시의 위치를 구체적인 현실로 끌어내려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한다는 것이 김기림의 생각이다.

김기림은 리차즈 비평이 갖는 형이상학적 측면보다는 전달론에 더 관심을 갖고 있었다. 김기림이 끊임없이 리차즈의 유티주의적 태도를 비판하면서 그에게 매달렸던 것은 전달 방식의 중요성, 즉 기술의 중요성을 리차즈가 알려주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sup>25)</sup> 실제 김기림의 『시의 이해』(1950)는 리차즈의 이론 중에서도 전달론에 집중되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기림은 문학의 내용(의미)을 간과했다는 점을 들어 리차즈를 비판하면서도, 그 자신은 ‘기술’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었다.<sup>26)</sup> 김기림은 ‘주지적 태도’라는 용어를 쓰면서 “시는 우선 <지어지는 것>이다. 시적 가치를 의욕하고 기도하는 의식적 방법론이 있지 않으면 아니된다”라고 밝힌 바 있다.<sup>27)</sup> 그는 자신이 초기 시론에서부터 주장해 온 ‘생에 대한 적극적 태도’(시인의 신념 혹은 경험)를 어떻게 하면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왔고, 그의 이미지즘(초기), 새타이어(중기), 노래(후기)는 이런 고민이 만들어낸 기술이었다.

신비평이 작가의 집필 의도나 독자의 반응이 아니라, 작품의 구조에서 작품을 평가하려는 데 반해 리차즈는 작가와 독자의 위치도 중시하였다. 김기림의 비평은 전달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고 시인과 대중의 관계, 문학과 사회의 문제에 중심이 놓인 실용론적인 것으로, 이는 리차즈 이론을 수용하고 있는 김기림 문학의 특색이다. 해방기 김기림의 활동은 루이스, 스펀더 등과 영향관계에서 설명<sup>28)</sup>되기도 하는데 김기림이 해방기에 실천을 중시하고 나선 것은 초기부터 내재된 리차즈 수용 태도와도 밀접한 관련을 지

25) 김기림은 리차즈가 태도의 내용에는 무관심하고 형식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폄하하고 있지만 이는 신비평가들과는 다른 리차즈 이론의 건강한 측면을 간과한 것이며 모더니즘이 가지는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표면적 발언이다. 리차즈가 형식을 중시한 것은 다름이 아닌 내용의 효율적 전달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26) 김우창은 김기림의 시를 ‘현실적인 시를 가장한 여행의 시’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김기림의 여행은 보들레르의 여행처럼 현실의 불완전에 대한 강한 의식, 도덕적 열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한다.(김우창, 『한국시와 형이상』, 『궁궐한 시대의 시인』, 민음사, 1977, 47~48면) 리차즈를 신념의 부재라는 측면에서 혹독히 비판했지만 김기림의 신념이 낭만적 속성을 지닌 소박한 휴머니즘이라면 그가 기교에 치우친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인지도 모른다.

27) 김기림, 『김기림 전집 2-시론』, 심설당, 1988, 79면.

28) 김용직, 『해방기 한국 시문학사』, 민음사, 1989, 187~188면.

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리차즈의 영향관계에 대한 고찰을 배제한 김기림 비평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일정한 한계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 3. 전후의 리차즈 수용사-신비평과의 관련하에서

전후의 리차즈 수용은 신비평이라는 새로운 조류 속에 합류되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기림 이후 리차즈 전문가가 나오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하다. 김용권은 이 시기 영문학 전공자로서 신비평의 근원이 엘리엇과 리차즈에 있음을 여러 논문을 통해 드러내었다. 고석규 역시 곳곳에서 리차즈의 언어관이나 신비평가들의 개념을 언급하고 있으며 조항 또한 초현실주의 이론에 기대 리차즈의 은유론을 비판하였다. 본 연구는 송옥의 『시학평전』(1963)과 김종길의 『시론』(1965)을 중심으로 리차즈 및 신비평에 대한 그들의 수용 태도를 고찰하고자 한다.

#### 3-1 송옥의 경우

김기림이 리차즈를 비판하면서도 여전히 그의 심리학을 한 축으로 하여 과학적 시론을 수립하고자 했던 데 반해, 송옥은 더욱 비판적인 태도를 갖는다. 송옥은 리차즈가 현대의 특성을 과학적 세계관에서 찾으면서 초월적 가치나 종교적인 세계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리차즈를 따르면 과학을 제외하고 종교나 형이상학, 시학 등이 모두 지식으로서 별로 가치가 없는 감정의 요구라는 것이다”). 이러한 송옥의 리차즈 비판은 김기림이 리차즈를 바라보는 관점과 너무도 다른 것이기에 인상적이다. 실용주의자인 김기림의 시각에서 볼 때 리차즈의 예술론은 지나치게 형이상학적인 것이었다면, 송옥에게는 시어를 사이버 진술로 규정하고 과학의 언어만을 진리라고 하며 시는 정서에 결부시킨 리차즈의 이론은 시의 위치와 가치를 모호하게 만든 것으로 판단되었다.

송옥의 리차즈 비판의 중심은 그의 이론이 시를 읽는 경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시를 만드는 경험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송옥은 리차즈가 시를 충동이나 태도와 동일시하고 시가 지닐 수 있는 모든 진리를 부정하면서 시가 우리를 구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sup>29)</sup> 송옥은 시가 충동이나 태도를 넘어서 진리와 대등해지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 이 시기 송옥에게 시란 단순히 문학적 상상력의 표현이 아니었고 ‘정신적 죽음을 겪고 난 후 부활을 얻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의미를 띄고 있다.<sup>30)</sup> 이러한 그에게 문학은 사상적 공백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라야만 했다. 그런데 시를 사 이비 진술(pseudo-statement)로 규정하여 과학을 진리에, 시는 정서에 결부시킨 리차즈의 견해에 송옥이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이러한 송옥의 리차즈 비판은 신비평가들이 리차즈의 초기 저서에 대해 가했던 비판과 매우 유사하다. 알렌 테이트와 존 크로우 랜섬 같은 비평가들은 어떻게 시에서 모든 진실을 부정하면서 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논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던 것이다. 그러나 리차즈가 시의 가치를 진리가 아닌 정서나 태도에 한정시키려 했던 것은 과학과 시가 만날 수 있는 공통된 기반을 없애 과학과 시의 충돌을 해결하려는 의도였다.<sup>31)</sup>

송옥은 리차즈 비평이 현대비평에 끼친 막대한 공을 인정하면서도 브룩스류의 신비평에 더 관심을 표명한다. 이는 그가 신비평가들의 분석 방법이 리차즈의 그것보다 더욱 정교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송옥은 시가 분석이 아닌, 종합하고 직관하는 세계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았기에 리차즈와 신비평가들의 방법론 모두에 거리감을 갖고 있었다. 리차즈와 브룩스의 시론을 아이러니와 패러독스로 파악한 송옥은 이들 시론의 공적을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시의 원천은 <역설>이나 <심리적 분석> 그 이전에 있다. 분석의 뒤에 오는

29) 송옥, 「과학적 시관에 대한 비판」, 『시학평전』, 일조각, 1963.

30) 송옥, 「시학 평전의 원서문」, 『문물의 타자』, 문학과지성사, 1978, 52면.

31) 브룩스 & 워셀(한기찬 역), 『문예비평사-현대비평편』, 청하, 1984, 109면.

종합이 아니라 분석을 앞선 종합, 즉 직관의 세계에 시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만일 시인이 브루크스의 말대로 역설이나 아이러니 그리고 심리적 분석만으로 작품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는 변변한 작품을 쓰지 못하게 되거나, 미치고 말 것이다. 또한 브루크스처럼 시의 구조를 분석하고 그 작품을 충분히 감상하였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마치 과일의 화학적 성분만을 분석하고 끝내 과일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어리석다 할 것이다.<sup>32)</sup>

송옥은, “시는 시론보다 넓은 것이며 시를 빚어내는 창조력은 논리나 과학적 합리성을 뛰어넘은 요소를 반드시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송옥의 주체적 시론은 황진이 시조의 분석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황진이의 역설과 내면적 거리』에서 보여준 송옥의 분석 태도는 많은 평자들로부터 그 탁월함을 인정받은 바 있으나 그 자신은 이러한 구조적 분석이 “황진이의 심정이 지니고 있는 내면공간을 온전히 밝혀줄 수는 없다”라고 그 한계를 긋는다. 즉 역설과 아이러니는 “동양의 시가 지닌 배경의 넓이나 내면의 공간 혹은 거리에서 오는 의젓함과 안정감 혹은 초월감을 다루기에는” 적당한 것이 아니므로 동양시학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가 『시학평전』을 통해 이루어내고자 했던 것은 결국 동서 문학 배경의 차이를 밝히고 한국시와 시학의 전통을 모색하는 것이다.

미국의 신비평에서 우리가 감탄하는 것은 작품 그 자체를 놀라울 정도로 세밀하게 분석해내는 솜씨다. 특히 우리가 외국어를 감상할 때는 언어에 대한 감각보다는 의미 내용에 관심을 두게 되는 까닭에 신비평은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작품에만 치중하면 그 작품이 태어난 바탕을 이루고 있는 문학배경과 문화전통이 하고 있는 기능을 무시하게 된다.<sup>33)</sup>

이처럼 송옥은 신비평의 작품 분석 능력에는 감탄하면서도 역사성이나 전통에서 벗어난 작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한편 엘리엇의 이론에 보다 깊은 공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의 『시학평전』은 엘리엇의 전통론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34)</sup> 『시학평전』

32) 송옥, 『시학평전』, 일조각, 1970, 129면.

33) 송옥, 「시학평전 원서문」, 『문물의 타작』, 55면.

이 유종호도 지적했듯이<sup>35)</sup> 신비평의 고유영역으로부터 상당히 이탈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분석적 작품해석의 시도는 한국 비평사의 소중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 3-2 김종길의 경우

김종길 역시 송옥과 같은 시기에 신비평의 영향 하에 실제비평을 펴하고 있다. 김종길은 송옥의 『시학평전』이 나온 해에 이에 대한 서평을 쓰고 있다.<sup>36)</sup> 먼저 그는 이 저서가 독자를 염두에 두고 쓴 것이라기보다 저자 자신의 개인적 모색의 자취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개괄하고, 송옥이 리차즈의 「과학과 시」(1926)를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그것이 리차즈가 이미 「수사의 철학」(1936)에서 수정한 이론임을 들어 비판의 부적절함을 지적한다. 또한 리차즈가 시를 「사이비 진술」(pseudo-statements: 김종길은 이를 「가진술」로 칭한다)이라 한 것은 시의 성격을 과학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것이지 시의 가치를 문화의 보좌에서 끌어내리려 한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이러한 김종길의 시각은 송옥이 리차즈의 심리학적 가치이론을 「시의 가치에 대한 형이상학적 규정에 대한 부정」으로 보고 이를 비판한 것과 차이를 갖는다. 송옥이 리차즈를 바라보는 시각이 지나치리만큼 부정적이고 초기 저서에 한정된 것이라면 김종길은 리차즈의 이론을 보다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시를 모르는 사람들이 시에서 메시지를 찾는다고 말하며, 「시는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이라는 맥클리쉬(A.Macleish)의 명제에서 「시를 하나의 구체적인 객관적 존재로 생각하는 시에 대한 현대적인 의식을 느낄 수 있다」고 부연한다.<sup>37)</sup> 김종길은 또한, 작품이란 완성된 이상 작가

34) 엘리엇은 「전통과 개인의 재능」에서 시인은 역사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때의 역사 의식은 진보로서의 역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역사 속에 끼여 있다는 것, 그러므로 詩作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시적 전통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이를 전통 의식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35) 유종호, 「영미 현대비평이 한국비평에 끼친 영향」, 『동시대의 시와 진실』, 민음사, 1982, 296면.

36) 김종길, 「아카데미시즘과 나르시시즘」, 『사상계』, 1963.9.

의 의지와는 독립된 실체이며 작품의 문맥을 떠난 어떠한 해석도 내려서는 안 된다고 피력한다. 김종길은 리차즈를 위시한 신비평을 자신의 비평적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시는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한다’는 시에 대한 객관적, 존재론적 입장의 표명, ‘시는 제작된 것이며 시인은 제작자’라는 확고한 의식 등이 이를 설명해 준다.

김종길은 또한 시란 “어떻게 말하면 끊임없이 해체와 파괴를 치름으로써 비로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특수한 유기체”라고 정의한다. 그는 시가 단순한 생활감정의 발산에 그치고 만다면 예술적인 창조로서의 보다 값진 기능은 수행하지 못하기 쉽다고 지적하며 “언어의 새로움과 힘과 강도에 대한 기교적인 탐구가 간절히 요망된다”고 하여 기교에 대한 자각의 필요성을 강조<sup>37)</sup>하고 있어 리차즈 및 신비평가들이 주장하는 바와 맥락을 같이 한다.

김종길은 신비평가들의 유기체적 패러다임을 원용했으나 시인의 심리학적 발생론, 세계와 독자까지 배척한 것은 아니었다. 역설과 아이러니의 시적 가치를 제창했던 신비평가들과 달리 김종길은 그러한 시적 기법이 갖는 논리적 모순, 의미의 모호함에 거리감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태도는 지나치게 문학작품의 수용자인 독자를 의식하는 데서 오는 것으로, 그는 현대에 있어 시가 독자로부터 소외되는 상황이 시의 난해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시가 독자의 외면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논리를 갖춘 시가 필요하다는 것은 효용론적 입장에서 시를 보는 태도이며 이는 ‘시란 존재하는 것’이라는 신비평의 입장과 거리가 있는 것이다.<sup>38)</sup>

김종길은 자신의 논리에 비추어 합당한 시만을 선택하여 평가하였고 시와 시인을 철저하게 분리하지도 않았다. 적어도 그에게 시를 분석하게 만드는 동인이 시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시인으로 향해 있다는 점이 그를 신비평의 정통성과 멀어지게 하는 부분이다. 김종길은 시를

37) 김종길, 『시론』, 탐구당, 1965, 16~17면.

38) 김종길, 「현대시의 현황」, 『시론』, 96~99면.

39) 김형수, 「김종길 시론 연구」, 『한국현대시론사』, 모음사, 1992, 445면. 이 글은 김종길이 독자의 입장에서 의미해불가를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독자반응비평적 관점에서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통해 독자에게 ‘진실’을 전달하고자 하였으며 작가의 전 작품을 시기별로 다루어 작가의식의 변모에도 관심을 가진다.

김종길의 시인 및 독자에 대한 관심은 그로 하여금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시론을 재정립하게 만든다. 이는 『진실과 언어』(1974)에 실린 「주체성의 발견」(1970), 「廉潔性의 회복」(1971), 「진실과 언어」(1972) 등에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그에게 육사, 만해, 윤동주의 시는 그들의 생애와 시가 구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의 주목을 끈다.<sup>40)</sup> 그가 우리 시의 과제로 내세운 염결성의 회복은 시인이나 비평가의 도덕적, 예술적 양심의 문제로 엘리엇류의 비평적 지성과도 견줄 수 있다. 결국 김종길은 ‘시란 인생과 세계의 진실을 가장 고도로 조직된 언어로써 감동적으로 제시’한다고 정의하는데 이는 가치있는 체험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예술이라는 리차즈의 관점에서 멀지 않다.

김종길이 시에서 중시한 것은 결국 시인이 그 자신의 시대를 살아가는 도덕적 지성과 양심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진실이라는 측면이 긴장된 언어와 조율하여 빚어내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 비평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시적 체험의 진실성 및 시어의 내적 유기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김종길의 비평적 관심은 황매천, 이육사, 윤동주, 조지훈, 유치환 등으로 기울었는데 그는 이들의 시에서 시적 체험의 진실성(염결성)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김종길은 이들 시인들의 「비극적 삶」과 「조탁된 언어적 긴장」 위에 한국시의 전통을 수립하고자 했다.

결과적으로 『진실과 언어』에서 보여지는 김종길의 비평가적 태도는 수사적 분석에 주력하는 미국의 신비평보다는 T.S.엘리엇에서 M.아놀드로 소급하는 문화비평에 가까운 것이 된다. 위대한 문학작품들이 현대의 물질주의, 산업주의, 야만적 힘에 대항하여 삶의 가치를 지켜줄 수 있으리라는 신념이 바탕이 된 도덕적 열정이 신비평의 심미적 형식주의에서 리비스를 구별시켜주었듯이 김종길의 ‘염결성’에 대한 신념은 그를 신비평의 원칙론에서 벗어나게 했다.

40) 김종길, 「주체성의 발견」, 『진실과 언어』, 일지사, 1974, 11면.

#### 4. 맺음말

1930년대 초반 이양하, 최제서의 소개로 시작된 리차즈 이론의 수용은 김기림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우리 문단에 전면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1950년대 이후 본격화된 신비평 이론의 수용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전후의 리차즈 수용은 다소 비판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비평의 또다른 뿌리인 엘리엇에 관한 수용이 더 큰 줄기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최제서에게서 리차즈의 평형이론 속에 내재한 질서 유지, 현실 안주적인 측면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김기림의 다소 형식논리적인 리차즈 이해 속에서 시의 과학화에 대한 신념과 함께 시의 사회적 기능을 재고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송옥의 비판적인 리차즈 이해의 바탕에는 시란 인식이며 사상이자 윤리여야 한다는 인식이 놓여 있다는 것과 김종길의 실제비평이 미국의 신비평가들보다는 이들 이론의 뿌리인 아놀드, 엘리엇, 리차즈의 비평관과 공유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고찰하였다.

전쟁의 폐해를 경험하고 이로 인해 뿌리뽑힘의 감수성을 지닌 이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사상과 윤리의 시였다. 자신들의 시대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위기감은 엘리엇과 그들이 공유했던 정서이자 문제 의식이었으며 이로 인해 전후 비평가들에게 엘리엇은 전폭적으로 수용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송옥과 김종길이 명백히 리차즈를 위시한 신비평의 분석적 방법을 자신들의 비평적 거점으로 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와 시인을 철저히 분리할 수 없었던 것 또한, 이들이 시를 평가함에 있어서 시인의 가치관과 윤리의식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소멸과 파멸에로의 욕망’으로 대변되는 전후 문학인들의 정신적 공백감과 이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은 송옥이 동서 시관의 비교를 통해 동서양 시의 변별성을 찾아내려 하고 마침내 한용운의 시에서 우리시의 전통을 발견하려 한 점이나 김종길이 시와 시인을 분리하지 않은 가운데 유교의 선비정신을 현대시의 주류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난다. 30년대 이양하, 최제서, 김기림의 리차즈 수용 태도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시비평의 과학화와 시의 현대성에 대한 열망이 강하여

그들의 실제비평은 정지용, 백석, 이상, 김기림의 모더니즘 시에 집중되었는데 이는 전후의 송옥, 김종길의 한국시의 전통과 사상을 찾고자 하였고 한용운(송옥), 이육사(김종길)의 시에서 이를 발견한 것과 분명한 차이를 갖는다.

한편 리처즈의 시론은 우리 비평사에 시와 신념의 분리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시의 언어적 측면 즉 전달의 중요성을 재고하였고 시와 인식에 대한 사유를 개진하게 하였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특히 리처즈의 저서 중 『실제비평』은 시를 분석하는 객관적인 시각을 제시하여 시교육의 틀을 마련했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 이양하, 「리처즈의 문예가치론」, 『조선일보』, 1933.1.22-31.  
 ———, 「조선어의 수련과 조선문학장래」, 『조선일보』, 1935.7.6.  
 ———, 「조선현대시의 연구」, 『조선일보』, 1935.10.4-11.  
 ———, 「바라든 지용시집」, 『조선일보』, 1935.12.7-11.  
 최재서, 「현대주의주의문학이론」, 『조선일보』, 1934.8.7-12.  
 ———, 「비평과 과학」, 『조선일보』, 34.8.31-9.5.  
 ———, 『문학원론』, 춘조사, 1957.  
 ———, 「문학과 모랄」, 『최재서 평론집』, 청운출판사, 1961.  
 김기림, 「현대비평의 딜레마—비평, 감상, 제작의 한계에 대하여」, 『조선일보』, 1935.11.29-12.8.  
 ———, 「과학과 비평과 시」, 『조선일보』, 1937.2.21-26.  
 ———, 「시의 이해—I.A.리처즈를 중심으로」(1950), 『김기림 전집2—시론』, 심설당, 1988.  
 송 옥, 『시학평전』, 일조각, 1970.  
 ———, 「시학 평전의 원서문」, 『문물의 타작』, 문학과지성사, 1978.  
 김종길, 「아카데미시즘과 나르씨시즘」, 사상계, 1963.9.  
 ———, 『시론』, 탐구당, 1965.  
 ———, 『진실과 언어』, 일지사, 1974

### 2. 2차 자료

- 김용직, 『해방기 한국 시문학사』, 민음사, 1989  
 김우창, 「한국시와 형이상」, 『궁핍한 시대의 시인』, 민음사, 1977.  
 김유중, 『한국모더니즘문학의 세계관과 역사의식』, 태학사, 1996.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상연구1』, 일지사, 1984.  
 김형수, 「김종길 시론 연구」, 『한국현대시론사』, 모음사, 1992.  
 서준섭, 「1930년대 한국모더니즘 연구」, 서울대 대학원, 1977.  
 ———, 「한국 현대문학비평사에있어서의 시비평이론 체계화 작업의 한 양상」, 『비교문학』, 1980.12.  
 유중호, 「영미 현대비평이 한국비평에 끼친 영향」, 『동시대의 시와 진실』, 민음

- 사, 1982.
- 이재선, 「문장론성립에 있어서의 서구의 영향」, 『어문학』 17, 한국어문학회, 1967.12.
- 한계전, 『한국현대시론연구』, 일지사, 1983
- 라만 셸던 외(정정호 외 역), 『현대문학이론개관』, 한신문화사, 1988.
- 리처드 포스터(정태진 역), 『뉴크리티시즘의 재평가』, 한신문화사, 1990.
- 브룩스 & 워셀(한기찬 역), 『문예비평사—현대비평편』, 청하, 1984.
- 테리 이글턴(김명환 외 역) 『문학이론입문』, 창작과비평사, 1986
- 프레드릭 제임슨(윤지관 역), 『언어의 감옥—구조주의와 형식주의 비판』, 까치, 1985.
- I.A.Richards(이양하 역), 『시와 과학』, 을유문화사, 1946.
- I.A.Richards, Science and Poetry ,1926, Routledge & Kegan Paul(1970년 판)
- I.A.Richards, Principles of Literary Criticism, 1924, Routledge & Kegan Paul Ltd.(1964년판)
- T.S.Eliot, “Tradition and the Individual Talent”, Selected Essays., 1932, Faber and Faber Limited(1980년판)